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20卷(2), 2017, 8, pp. 125~160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 도출에 관한 연구*

엄 미 리** · 권 정 언***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학교급별 진로교육 성취기준 재·개정,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기반을 다지며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학생의 진로교육(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담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는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본 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일반 교원의 핵심역량을 밝혀 진로교육의 내실화, 교원연수 및 진로지도(상담) 자료 개발에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문헌연구, 우수성과자(교사) 심층면담, 전문가 타당화 조사, 교사 역량우선순위 분석 등의 역량모델링을 거쳐 7대 역량군, 15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특히 직업정보의 탐색·수집·축적·가공 역량은 전 학교급에서 선정될 만큼 우선순위가 높았고, 교과 외 지식이나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를 통한 학부모 진로상담 역량과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역량도 초·중·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학생마다의 진로개척을 위해 일반 교원이 직업세계와 사회 전반의 변화 추세를 살피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상담 수행이 강화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 주제어: 일반 교원, 진로지도, 진로상담, 직무역량, 역량모델링

투고일: 2017년 2월 13일, 심사일: 3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31일

* 본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원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초빙교수(mreom@kw.ac.kr)

*** 제2저자(교신저자), 중부대학교 원경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조교수(eoniroki@joongbu.ac.kr)

I. 서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정보화·국제화·세계화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사회적인 변화, 직업세계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최근 OECD, World Bank, EC 등의 국제기구들은 37개국의 진로지도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진로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엄지·이건남, 2014), 국가적 주요 핵심과제로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재성, 2011; 김나라·방재현·정진철, 2012). 구체적으로 청년실업타파,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적 인재 양성의 방안으로 진로교육을 강조하기도 하고(정철영 외, 2014), 행복 추구,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측면과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라는 국가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고재성,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는 2009년 5년 단위의 진로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운영, 2010년 진로진학상담교사¹⁾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 2011년 진로교육정책과 창설, 2012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발표, 2013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및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법률 제13336호, 6.22공포, 12.23시행) 등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 진로교육의 기반을 다지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법적 기반을 마련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학자(김옥선·권정언, 2015; 김충기, 1986; 정영공, 2007; Bailey, 1973; Hoyt, 1978)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인이 일생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계획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교육법에 진로전담교사로 명시됨에 따라 이하 진로전담교사로 기술함.

도와주는 총체적 경험 또는 의도적·계획적·체계적인 교육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재를 들여다보면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한 명의 진로전담교사만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및 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한 장현진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진로교육 관련 인식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4.57점), 진로교육(지도)에서 담임교사의 중요성(4.09점), 진로교육(지도) 연수의 참여 의향(4.03점), 교과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의 필요성(3.98점), 진로교육 시수 확대(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 시간의 확보(32.2%)와 진로지도 자료(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30.7%)이 요구되며,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와 역량 제고(복수응답, 60.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담임교사들의 진로의식이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지도) 역할에 대한 책무성이 한층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뿐 아니라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철영 외, 2014).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 및 상담 영역과 관련한 일반 교원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종범 외(2010)는 진로교육에서 일반 교원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정철영 외(2014)는 이종범 외(2010)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학생진로개발촉진자, 지역사회지원연계자, 입시전형준비지원자, 학생진로문제중재자로 나눈 후 진로전담교사와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연구에서 김은경(2014)은 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또는 직무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하나의 학교급 교원에 해당하는 진로교육의 역할이나 직무를 분석하거나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진로전담교사와의 역할 비교를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역량모델링을 통해 명확한 체계로서의 역량을 제시하거나,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학교급별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역할과 역량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교육의 개념이나 목표,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세부 목표와 성취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평생학습자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계획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로개발에 있어 학습자를 진로 미성숙자에서 진로 성숙자로 전환시

키고 관련 유목적적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은 물론,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전문 역량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 영역에 초점을 두고 첫째, 일반 교원의 역할을 재정 의하고 역량모델링을 통해 해당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진 로지도 및 상담 영역에서 학교급별로 일반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역량에 차이가 있 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 교원이 발휘해야 할 역량이 구체화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실제적인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연수와 진로지도(상담) 자료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진로교육과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개인이 일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총칭-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의 의미,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직업변동, 개인의 삶과 사회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활동 및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교육을 제시하였다. 진로 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진로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Bailey(1973)는 개인이 만족 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 선택한 진로의 지속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 의 내렸고, Hoyt(1978)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능력을 가지고,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 록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급변하는 사회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종합적으로 조직된 교수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국내의 경우, 정영공(2007)은 일생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극 적응, 개선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적재적소에서 원만한 사회 일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체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옥선·권정언(2015)은 진로교육을 직업교육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자아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계획적·체계적인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진로교육법에 제시된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학교급별로 네 개의 대영역,²⁾ 여덟 개의 중영역³⁾으로 구분하여 세부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학교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이를 개정·발표하였다(교육부, 2016a).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일반고등학교는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는 그 내용과 수준에서 있어서 차이를 필요로 하며 학생들의 성취기준 또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교원이 해당 학교급의 진로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발달적 특성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진로교육(지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3)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탐색,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진로설계와 준비

2. 진로지도 및 상담 영역에서 일반 교원의 역할과 역량

일반 교원의 직무, 역할, 역량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김기태·조평호, 2003; 김이경 외, 2005; 박영숙·정광희, 1999; 전제상, 2000; 정미경 외, 2011; 조우연, 2012)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은 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영역 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활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교육부에서는 '진로상담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업'을 통해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및 지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진로체험강화, 진로전담교사 배치,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였다(장현진 외, 2015). 진로전담교사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진로전담교사와의 협업, 협력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에서의 일반 교원의 역할, 역량, 활동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윤경 외(2012)는 초등교사의 진로교육 역할과 직무를 교육과 지원으로 구분하고 교육에는 학생진로개발촉진자, 진로문제중재자로, 지원에는 지역사회자원연계자, 진학준비지원자, 학교진로교육실무총괄로 역할로 나누었다. 이종범 외(2010)는 학생진로개발촉진자, 지역사회자원연계자, 입시전형준비지원자, 학생진로문제중재자, 학교진로교육총괄관리자의 다섯 가지 역할로 구분한 바 있고, 정철영 외(2014)는 이정범 외(2010)의 연구를 학생진로개발촉진자, 지역사회지원연계자, 입시전형준비지원자, 학생진로문제중재자로 재구분하면서 진로전담교사와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표 1〉 참조).

<표 1> 진로전담교사와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활동에서의 역할 및 활동

역할	진로전담교사 활동	일반 교원 진로교육활동
학생진로 개발 촉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직업' 교과를 지도하고, 학생 진로 및 진학문제와 관련한 보충 및 심화 상담 수행 - 개인특성의 진단 및 평가 - 진로 및 진학 정보제공 및 관리 -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진로 및 진학상담 - 진로결정 및 시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진로관련 동아리, 진로지도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운영) • 담임교사로서 진로지도 및 상담 수행 • 진로관련 비교과 활동 지원 및 운영 (진로관련 동아리, 진로지도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운영)

역할	진로전담교사 활동	일반 교원 진로교육활동
지역사회 지원연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자원을 축적 및 관리하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함. -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관련 행정 -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진로동아리, 진로지도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운영) 진로관련 비교과 활동 지원 및 운영(진로관련 동아리, 진로지도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운영)
입시전형 준비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 학생을,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학생을 지원함. - 진로 및 진학 정보제공 및 관리 - 진로 및 진학상담 - 진로결정 및 시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로서 진로지도 및 상담 수행
학생진로 문제 중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진로지도는 담임교사와 연계하며, 전문 진학지도는 진로전담교사와 연계함.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진로진학지도 방법을 컨설팅함. -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와 연계한 진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로서 진로지도 및 상담 수행

자료: 정철영 외(2014: 326)

정철영 외(2014)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할 수행을 위한 필요역량을 제시하였다. 교과교사로서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담임교사로서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수행, 진로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 및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고 기본 역량과 심화 역량을 제시하였으며(〈표 2〉 참조), 김은경(2014)은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또는 직무역량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표 3〉 참조).

<표 2>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할에 따른 역량

구분	기본 역량	심화 역량
교과교사로서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진로교육의 이해 진로발달 및 선택이론의 이해 초중등학생 진로발달의 이해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운영 진로교육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진로교육 평가방법 적용
담임교사로서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기법의 기초적 이해 진로심리검사의 종류 및 활용방법의 이해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정보 탐색·수집·활용방법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학부모 진로교육 이해 및 실시

구분	기본 역량	심화 역량
진로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수립·준비 방법의 이해 •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활동 이해 •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윤리 이해 •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자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진로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관리 • 진로계획서 및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자료: 정철영 외(2014: 331)

<표 3> 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비교

구분	공통점	차이점		공통역량
		타 직종	진로전담교사	
교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진로교육 총괄 • 진로체험활동 기획·운영 • 진로진학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역량 • 수업역량 • 행정역량 • 인성역량 • 연계역량 • 역량개발역량
전문상담교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심리 상담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총괄, 기획운영 • 진로진학 상담 및 검사 • 교과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 심리검사 • 교직원 연계 • 지역사회연계 • 학부모 교육 • 홍보 • 학생교육 • 행정 • 관리 • 상담연수
진로상담전문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업무 • 지역사회 연계 • 진로 정보 제공 • 진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생애전반 진로상담 • 다양한 계층, 영역대상 • 조직, 근로자간 인적자원개발 • 직장 내 진로프로그램 개발 • 직업기초 능력 교육 • 인력 적재적소 배치 • 직업적응, 경력개발 조력 • 실직자, 노사문제 • 기업체 간부교육 • 은퇴 후 설계, 여가생활 등 포괄적인 진로 업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진로 교육 총괄 • 교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 •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한 이해 • 개인차 및 다양성 이해 • 진로상담 역량 • 진로검사 역량 • 진로정보 역량 • 진로 프로그램 역량 • 연계 및 자문 역량 • 조직 역량 • 개인자질 역량 • 전문가 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 성찰 및 자기개발 역량

자료: 김은경(2014: 22~23)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전문가의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공통 역량은 상담역량(진로상담, 진로관련 심리검사), 수업역량(학생대상 진로진학 수업계획·준비·전략, 학부모 교육), 행정역량(진로상담사업 기획 및 운영, 상담프로그램 개발, 사무처리 등), 연계 역량(부모, 교사, 지역사회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 및 자문), 인성역량(진로상담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격 및 개인적 자질), 대인 관계역량(학생 및 동료교사와 원만한 관계형성), 자기개발 역량(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전문가 심층면담, 역량우선순위 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역량과 역량모델링

역량(competency)은 McClland(1973)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일반적인 수행자와 우수 수행자를 구별하는 차별적인 행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역량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Klemp(1980)는 McClland와 맥을 같이 하며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또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의 기저에 있는 특성으로 정의 내렸고, Boyatzis(1982)는 개인 기저의 특성인 동기, 기능, 특질, 개인의 사회적 역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지식의 총체라고 하였다.

기존 개념 정의를 확대하여 Spencer & Spencer(1993)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수행 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을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하였다. Parry(1996)는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책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는 역량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측정가능하고 훈련이나 개발을 통해 향상·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 송영수(2000)는 특정 직무에서 보통수행자와 다르게 우수성과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강석주(2004)는 특정 조직 내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별되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관춘·김은경(2012)은 역량에 대해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가 활용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 내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역량들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찾아낸 집합체를 역량모델,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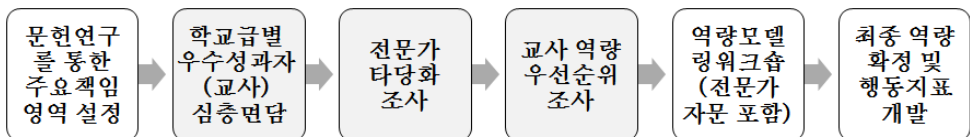
분석의 과정은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라고 한다(박한숙·박수홍, 2016; 서명희·김민정, 2014). 이에 대해 McLagan(1997)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며, 지식, 기술, 태도, 지적전략 등을 포함하는 역량모델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자경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역량모델은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을 묘사한 의사결정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역량모델을 통해 조직 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특성을 조합하여 채용, 배치, 승진, 교육, 훈련 및 개발, 평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 또한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수행에 있어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역량별 행동지표를 명세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내실화, 교원연수 및 진로지도(상담) 자료 개발에 준거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문헌연구 및 실증사례(예를 들어 류지춘·이신동, 2014; 박석영·김진모, 2014) 또는 면담 및 델파이 조사(예를 들어 금지현 외, 2016)를 바탕으로 교원의 가설적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양적 검증을 통해 타당화하는 방법론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및 세부 절차



첫째, 문헌연구는 선행연구(김은경, 2014; 이종범 외, 2010; 정윤경 외, 2012; 정철영 외, 2014) 고찰을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일반 교원이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에

서 요구되는 8대 직무의 주요책임영역(key responsibility areas, 이하 KRAs)을 추출하고 영역별 수행모습을 일차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심층면담 및 역량도출의 기초 자료로서 충실하고 충분히 기능하도록 하였다.

<표 4>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에서의 일반 교원 8대 직무

주요 책임 영역	수행모습
1.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심리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진로와 연계시켜 해석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다.
2.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業과 노동시장 동향 포함)를 여러 출처로 탐색, 수집하고 지속적인 축적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도록 가공하여 전달한다.
3.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자신의 담당 교과에서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수업 시 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4.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지원	동아리, 봉사,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진로 관련 비교과활동을 기획하거나 직접 운영 또는 지원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돕는다.
5. 진로 연계 학습 촉진	학생의 진로목표 구체화, 교과적성의 발견 및 피드백으로 진로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코칭을 실시한다.
6. 진로경로 설계 조력	학생이 주체적으로 진로경로를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적절한 개입(진로정보 제공, 대안적 진로경로 제안,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등)을 제공한다.
7. 학부모 진로상담	학부모가 학생 진로실현의 지원자가 되도록 학생 진로 관련 정보(학업성취도, 진로개발 이력 등)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안한다. 만약 진로갈등이 있을 경우 조정한다.
8. 진학/취업 준비 지원	상급학교/취업처별 전형요소를 분석하고, 진학결과/취업결과를 DB로 구축하여 학생의 최적 지원을 위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 우수성과자 심층면담은 학교급별로 진로교육(지도)에서 우수 교사를 추천받아 현장 사례를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 시 주요책임영역(KRAs)마다 요구되는 역량과 우수 수행 행동을 정돈하여 셋째, 전문가 타당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가 낮은 역량은 수정하고, 역량명 및 정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다. 넷째, 역량우선순위는 학교급별 현직 교사 대상의 역량 선정 및 정교화를 위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과정을 거친 후, 다섯째,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연구진 역량모델링 워크숍을 통해 최종 역량모델을 수립하고 역량사전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 중 우수성과자 심층면담, 전문가 타당화 및 교사 역량 우선순위 조사에 대한 상세 연구내역과 중간 결과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수성과자 심층면담

역량모델은 현장의 우수성과자의 차별적 행동특성을 찾아내어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성과는 수행의 결과로서 목표 또는 역할의 달성도이며, 우수성과자는 보통수행자가 보이는 달성도를 월등히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사람, 또는 이러한 달성도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사람이다.

교원의 경우, 법령의 기준에서 우수교원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사명의식, 봉사 정신 등을 가진 자,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학습지도·생활지도 및 학급경영·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자로 볼 수 있고(하준미, 2004),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학교경영에 대해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4) 직무 성과의 지표와 그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우수성과자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학생 진로지도(상담)의 경험이 풍부하며, 진로진학 관련 수상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 등의 경력을 갖춘 교원으로 정의하고,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심층면담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방식은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을 조사하고, 그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표집하는 것으로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활용하며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다(고영복, 2000).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로교육(지도) 우수성과자를 추천받되 전환기 학년 담임교사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학교급별, 직위, 교직발달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9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5> 심층면담 대상자 정보

구분	학교급	직위	경력	학력	지역	성별	기타
A	초등	교장	32년	석사(진로상담)	서울	여	진로 교육 교원연수 강사
B	초등	교장	32년	석사	서울	여	우수 진로교육과정운영
C	초등	교사	6년	학사	서울	여	진로 체험 운영 우수성과자
D	중학	부장	17년	석사(교육학)	서울	남	교원연수 강사, 장관표창 4회
E	중학	교사	24년	석사	서울	여	교육감상

4)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생활지도 평가지표 문항 예시 및 척도, 예시 '선생님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상담하십니다.'에 대해 '잘 모르겠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여섯 가지 구분으로 평가함.

구분	학교급	직위	경력	학력	지역	성별	기타
F	일반고	교사	11년	박사과정 (교육행정)	경기	여	교육감표창 2회, 교육장표창 5회
G	일반고	부장	21년	석사(진로진학, 영어교육)	경기	여	진로교과 및 동아리운영 우수성과자
H	특성화	부장	28년	학사	서울	남	인문/금융계 진학취업지도 우수성과자
I	특성화	교사	7년	박사과정 (교육심리)	경기	여	공업계열 진학취업지도 우수성과자

심층면담의 질문은 첫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직무 현황과 요구사항, 둘째,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 인식 정도와 실제 요구 및 수행도가 높은 세부 목표, 셋째,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관련 직무역할(KRAs)에 대한 요구와 수행도, 넷째, 역할에 따른 고성과 교원이 보이는 우수행동 사례, 다섯째,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와 관련 교원연수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담 결과, 진로특성 및 진단에 대한 해석 요구는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학교급간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요구와 수행내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중시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진로관련 비교과활동 운영 및 지원을 강조하였다. 자기이해는 초등생과 중학교 저학년생에게, 진로탐색은 전환기인 중학교 고학년생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연계 학습을 촉진하고 진학지원을 강조한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습 및 취업처 발굴과 특성화고 전형관련 진학지원을 주로 언급하였다. 진로특성의 진단 및 해석, 전형 요소의 분석과 적합도 제시, 진학/취업 학생의 DB 관리 등 우수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례가 교원 역량강화의 내역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우수성과 사례가 교원의 교직 발달단계에 따른 수행의 탁월성보다는 학교급별로 요구되는 학생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수행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역량모델의 수립과 역량의 성숙도에 따른 행동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심층면담 이후, <표 4>의 주요책임영역(KRAs)은 보다 상세하여 32개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우수 교사가 학생 진로개발을 위해 보통 교사와는 차별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들이 역량 정의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주요책임영역별 역량은 <표 6>과 같이 정돈하여 전문가 타당화 조사지에 바탕이 되었다.

<표 6>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8대 주요책임영역과 주요책임영역별 역량명

주요 책임영역	번호	역량명
1.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1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
	2	진로진단도구의 선택 및 결과 해석
	3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
	4	학생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소통
2.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5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
	6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
	7	직업정보의 전달 및 공유
3.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8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 포착
	9	교과-진로 연계 수업 설계 및 운영
4.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지원	10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체력
	11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12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력
	13	지역사회(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5. 진로 연계 학습 촉진	14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15	학생의 교과 적성을 진로개발로 전이
	16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
	17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6. 진로경로 설계 조력	18	진로의사결정 점검 및 개입(intervention)
	19	성공적/대안적 진로경로에 대한 DB 축적
	20	학생 맞춤형 진로경로 제안
	21	진로개발 이력에 대한 컨설팅
7. 학부모 진로상담	22	진로장벽 또는 진로갈등의 조정
	23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
	24	정보/경험에 근거한 자녀 진로의사결정의 방향 제안
8. 진학(취업) 준비 지원	25	상급학교 전형요소의 분석
	26	진학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27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공식문서 작성
	28	우수 취업처(실습기관 포함)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29	취업처별 전형요소의 분석
	30	취업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31	취업처 맞춤형 지원문서 작성 및 면접 지도
	32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

2. 전문가 타당화 조사

전문가 타당화 조사는 일반 교원 대상의 역량 정교화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역량을 선정하기 이전, 내용전문가의 논리적 사고와 분석 과정을 통해 설문 조사 도구에 포함될 역량들이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에 벗어나지 않는지, 영역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교원들의 수행 환경과 직무 내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절차이다. 이 방법론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는 하나, 전문가들간의 평정 합치도를 내용타당도계수(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⁵⁾)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Lawshe, 1975).

조사는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초·중·고·특성화교 교원(18명), 진로교육 관련 교수(5명), 연수기관전문가(1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표 6>에 역량별 정의를 포함하여 개발되었고, 전문가들은 각 5점 Likert 척도로 각 역량의 타당한 정도를 평정하였다. 만약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역량이 있거나 역량의 표현이나 정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기술하게 하여 질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wshe(1975)의 CVR 임계치(critical value)를 Wilson, Pan, & Schumsky(2012: 206)가 재계산하여 제시한 최소 CVR값인 .336을 기준으로, '교과·진로 연계 수업 설계 및 운영(9번)',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체력(10번)', '정보/경험에 근거한 자녀 진로/사결정의 방향 제안(24번)'의 3개 역량이 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 참조). 다만 역량 선정 및 정교화를 위한 설문 조사 도구에서는 이들 역량들을 배제하지는 않되, 역량 정의에서 수행 모습을 구체화하고 가치판단의 용어는 변경·제시함으로써 일반 교원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최종 의사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5번)'은 정의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직업정보를 모두 포함하게 한다거나, 역량명에서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체력(10번)'은 체력 대신 열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력(12번)'은 기획 및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추가 의견에 진로(진학)정보 데이터망은 교육부 차원에서의 구축되고 일반 교원은 데이터의 입력, 추출, 분석 등의 활용에 국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진로전담교사와 일반 교원의 역할 간 조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5)
$$CVR = \frac{n_e - \frac{N}{2}}{\frac{N}{2}}$$
, n_e 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를 나타냄.

<표 7>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역량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조사

번호	역량명	평균	표준편차	4, 5점 응답 수	CVR
1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	4.54	.59	23	.917
2	진로진단도구의 선택 및 결과 해석	4.58	.50	24	1.000
3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	4.25	.90	19	.583
4	학생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소통	4.46	.72	21	.750
5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	4.54	.59	23	.917
6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	4.17	1.05	20	.667
7	직업정보의 전달 및 공유	4.46	.72	21	.750
8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 포착	3.96	1.08	17	.417
9	교과-진로 연계 수업 설계 및 운영	3.96	1.20	16	.333*
10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체력	3.67	1.24	14	.167*
11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4.04	1.08	17	.417
12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력	4.17	1.01	18	.500
13	지역사회(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3.96	1.00	18	.500
14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4.33	1.01	19	.583
15	학생의 교과 적성을 진로개발로 전이	4.46	.66	22	.833
16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	4.29	.75	20	.667
17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4.42	.72	21	.750
18	진로의사결정 점검 및 개입(intervention)	4.17	1.01	18	.500
19	성공적/대안적 진로경로에 대한 DB 축적	4.21	.78	19	.583
20	학생 맞춤형 진로경로 제안	4.54	.59	23	.917
21	진로개발 이력에 대한 컨설팅	4.25	.90	19	.583
22	진로장벽 또는 진로갈등의 조정	4.25	.85	20	.667
23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	4.17	1.01	18	.500
24	정보/경험에 근거한 자녀 진로의사결정의 방향 제안	4.04	.86	16	.333*
25	상급학교 전형요소의 분석	4.63	.65	22	.833
26	진학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4.63	.49	24	1.000
27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공식문서 작성	4.54	.66	22	.833
28	우수 취업처(실습기관 포함)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4.46	.78	20	.667
29	취업처별 전형요소의 분석	4.50	.66	22	.833
30	취업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4.46	.72	21	.750
31	취업처 맞춤형 지원문서 작성 및 면접 지도	4.54	.72	21	.750
32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	4.50	.72	21	.750

* CVR<.336

3. 교사 역량 우선순위 조사

학교급별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 선정 및 정교화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총 261명의 일반 교원(진로진담교사 배제)으

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의 특성은 여교사(198명, 75.9%)의 비중이 크고 관리자(27명, 10.3%)도 일부 포함하였으며, 초·중·고·특성화고 학교급별로는 고르게 진행되었으나 특성화고(17명, 6.5%)는 비중이 다소 낮았다. 평균 연령은 42.1세, 평균 근무년수는 17.3년으로 나타났다. 응답 방식은 각 역량과 그 정의를 읽어보고 교원의 해당 역량이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개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요구되는지(중요도), 현재 얼마나 잘 발휘되고 있는지(수행도)를 6점 Likert 척도6)로 평가하게 하였다.

<표 8> 역량 우선순위 조사 대상자 정보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3	24.1	연령	30세 미만	32	12.3
	여	198	75.9		30세 이상 40세 미만	71	27.2
직위	일반교사	234	89.7		40세 이상 50세 미만	81	31.0
	교감 및 교장	27	10.3		50세 이상	77	29.5
학력	대졸	110	42.1	근무 년수	5년 미만	36	13.8
	석사	145	55.6		5년 이상 10년 미만	39	14.9
	박사	6	2.3		10년 이상 15년 미만	32	12.3
학교급	초등학교	91	34.9		15년 이상 20년 미만	48	18.4
	중학교	82	31.4		20년 이상 25년 미만	25	9.6
	일반고	57	21.8		25년 이상 30년 미만	52	19.9
	특성화고	17	6.5	30년 이상	24	9.2	
	기타	14	5.4	합계	261	100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실시했고, 자료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Borich의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수성과자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급별로 학생의 진로발달단계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를 확인한 바, 학교급별 역량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

Borich(1980)의 요구도 분석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차이가 클수록 바람직한 정도로 보고 여기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그림 2) 참조), 평균가중화 불일치점수(mean weighted discrepancy scores)를 요구역량 분석에 적용한 것이

6) 중심화경향(5점 척도의 경우 3점에 집중)을 방지하고, 판별도와 신뢰성에서 6점 척도가 5점 척도보다 우수함(Chomeya, 2010).

다. 이 방법론은 전문가적 개발요구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Elhamoly, Koledoye, & Kamel, 2014; Mckim & Saucier, 2011; Oladele, 2015; Ricketts, Duncan, & Peake, 2006; Zarafshani & Baygia, 2008).

[그림 2] Borich 요구도 계산식

Borich Needs Level

$$= \frac{\sum (Importance_i - Performacne_i)}{N} \times \frac{\text{Importance}}{\text{Importance}}$$

- ① *Importance_i* : importance rating of each
- ② *Performacne_i* : performance rating of each
- ③ *Importance* : mean of importance rating
- ④ *N* : number of observations

하지만 Borich 요구도 분석은 역량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하나, 어느 순위까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Mink, Schultz, & Mink(1991), 배을규(2003), 조대연(2009), 오승국·전주성·박용호(2014)가 적용한 The Locus for Focus 모형(이하 LF분포로 사용)을 활용하였다. LF분포는 요구도 수준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와 함께 상대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LF분포도는 [그림 3]처럼 역량의 중요도 평균값과 현재 실행도 평균값의 차이(세로축), 중요도의 평균값(가로축)을 두 축으로 네 개 분면을 구분한 후 역량별로 조사된 수치를 좌표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림 3] The Locus for Focus 모형 (Mink et al., 1991)

1사분면: HL High Discrepancy/ Low Importance	2사분면: HH High Discrepancy/ High Performance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의 평균값
4사분면: LL Low Discrepancy/ Low Importance	3사분면: LH Low Discrepancy/ High Importance	

중요도의 평균값

본 연구에서는 Borich 요구도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LF분포 상에서 LL분면이거나 HL분면인 경우 탈락시키고, 수행도와 무관하게 중요도가 낮은 경우 HH분면에 있다면 Borich값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포함하되, LH분면인 경우 Borich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역량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역량 선정의 원칙은 김용익 외(2001)와 배을규(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HH분면이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며 LH분면은 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해석한 것을 근간으로 삼았다.

가.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표 9〉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 따라 개별 역량마다의 값과 그 우선순위를 학교급별,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이다.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13번)’ 역량이 1순위,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6번)’ 역량이 2순위,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23번)’ 역량은 5순위로 평가되었으나, 세 가지 역량 모두 특성화고에서는 25순위, 13순위, 30순위로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 대상에서 3순위인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32번)’, 4순위인 ‘우수 취업처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28번)’, 7순위인 ‘취업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30번)’은 모두 취업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적합한 취업 준비 지원 역량군에 속하는 역량들로 확인되었다.

〈표 9〉 학교급별×역량별 Borich값과 역량 우선순위

역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기타		전체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1	5.43	21	4.08	28	5.12	6	6.44	9	2.08	19	4.80	25
2	5.21	25	3.99	30	4.24	23	6.25	12	3.08	9	4.56	28
3	5.67	19	4.32	25	5.14	5	8.46	1	4.51	2	5.23	15
4	5.18	26	4.84	19	4.14	24	7.00	4	3.59	5	4.88	23
5	5.37	22	5.23	11	5.36	4	6.69	6	2.43	17	5.24	14
6	6.87	4	6.05	2	5.77	1	6.23	13	4.38	3	6.19	2
7	6.21	14	4.68	20	5.43	3	5.54	21	2.02	21	5.26	13
8	5.27	24	4.33	24	5.11	7	5.59	20	2.05	20	4.78	26
9	4.55	32	4.08	29	4.45	18	5.46	22	2.69	15	4.33	31
10	4.88	31	4.11	27	4.49	17	6.54	8	2.20	18	4.52	29
11	5.37	23	5.09	12	4.99	9	4.60	26	0.00	31	4.83	24
12	6.20	15	5.05	13	4.08	27	7.61	2	1.39	25	5.19	18
13	7.93	1	6.20	1	4.83	13	5.05	25	3.52	6	6.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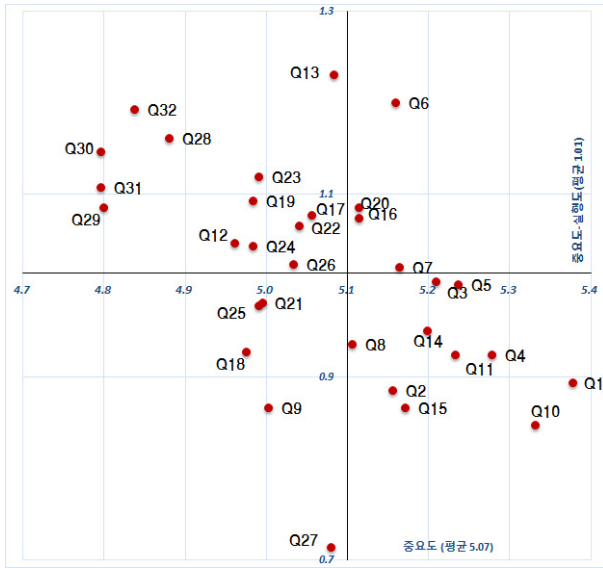
역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기타		전체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14	5.11	27	4.42	23	4.89	12	6.25	11	5.43	1	4.94	20
15	5.06	29	4.50	22	3.98	29	5.85	16	1.09	28	4.48	30
16	6.78	7	4.94	16	4.93	11	6.18	14	3.12	8	5.55	6
17	6.11	16	5.01	14	5.50	2	6.32	10	2.61	16	5.45	9
18	5.07	28	4.23	26	4.63	15	5.72	18	2.69	13	4.62	27
19	6.67	9	5.54	10	4.04	28	5.36	23	3.08	10	5.44	10
20	6.39	12	4.91	17	4.66	14	7.47	3	3.99	4	5.49	8
21	5.61	20	5.00	15	4.98	10	5.05	24	-0.33	32	4.90	21
22	6.71	8	5.71	7	4.12	26	4.26	29	1.66	24	5.37	11
23	6.79	6	5.69	8	5.02	8	3.97	30	1.96	22	5.59	5
24	6.54	11	4.87	18	4.58	16	3.88	31	2.74	12	5.20	17
25	6.30	13	3.66	31	4.28	21	5.79	17	3.42	7	4.88	22
26	6.60	10	4.67	21	3.85	31	5.72	19	2.69	14	5.15	19
27	4.95	30	3.21	32	2.74	32	3.36	32	1.37	26	3.62	32
28	7.56	2	5.56	9	4.13	25	4.57	27	1.71	23	5.67	4
29	5.79	18	5.74	5	4.26	22	5.95	15	1.31	27	5.21	16
30	6.85	5	5.83	4	4.32	20	4.41	28	0.68	30	5.50	7
31	6.09	17	5.85	3	3.96	30	6.90	5	0.96	29	5.31	12
32	6.93	3	5.71	6	4.39	19	6.69	7	2.86	11	5.77	3

이상의 분석 내용에서 보듯이, 전체 대상과 각 학교급 단위 대상 간에는 역량에 대한 격차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한 Borich 우선순위로만 역량을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The Locus for Focus 우선순위 분석 결과

Borich 요구도 분석은 어느 순위까지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그림 4]와 같은 LF분포도를 도해하여 중요도를 높게 판단한 영역에 각 역량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Borich값을 기준으로 10순위 이내 중 1순위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13번)', 3순위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32번)', 4순위 '우수 취업처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28번)', 5순위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23번)', 7순위 '취업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30번)', 9순위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17번)', 10순위 '성공적/대안적 진로경로에 대한 DB 축적(19번)'의 역량들은 모두 HL분포에 포함되어 최종 역량 선정에서는 탈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전체 표본집단의 LF분포도



이와 같이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 평균차이가 크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다는 것은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영역에서의 핵심직무역량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LF분포를 작성하여 15개씩 역량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학교급별 역량 모델을 수립한 후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학교급 단위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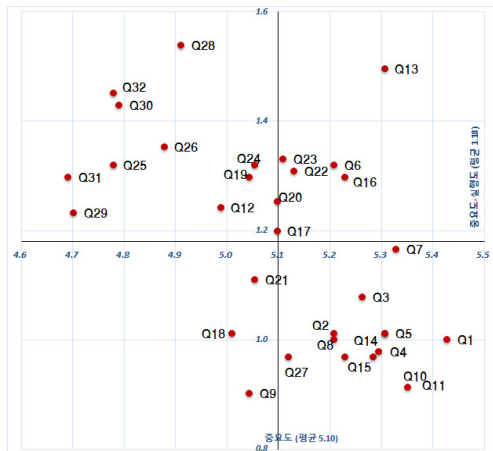
1. 초등학교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역량

초등 교원의 역량 분석 결과, Borich값 상위 20개 가운데 HH분면에 포함된 역량은 1순위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13번)’, 4순위인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6번)’, 6순

위인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23번)’, 7순위인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16번)’, 8순위인 ‘진로장벽 또는 진로갈등의 조정(22번)’, 12순위인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16번)’, 16순위인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17번)’으로 확인되었다. 우선순위가 높지만 HL분면에 속한 역량(26, 24, 25번)과 반대로 우선순위가 낮지만 LH분면에 속한 역량의 일부(7, 3, 1, 5, 11번)도 포함하여 역량모델을 도출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5] 초등 교원의 역량 우선순위 및 LF분포도

역량	Borich값	우선순위	LF분포	특화 ⁷⁾
13	7.93	1	HH	
6	6.87	4	HH	
23	6.79	6	HH	
16	6.78	7	HH	
22	6.71	8	HH	●
26	6.60	10	HL	
24	6.54	11	HL	●
20	6.39	12	HH	
25	6.30	13	HL	
7	6.21	14	LH	
17	6.11	16	HH	●
3	5.67	19	LH	
1	5.43	21	LH	
5	5.37	22	LH	
11	5.37	23	LH	



이는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급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진로특성을 조기에 파악해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학습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 중학교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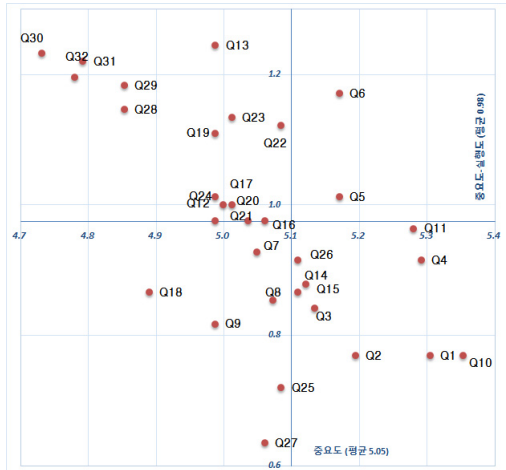
중학교 교원의 역량 분석 결과, Borich값 상위 20개 가운데 HH분면에 포함된 역량은 2순위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6번)’, 11순위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5번)’, 12순위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11번)’, 19순위 ‘학생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소통(4번)’이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어느 학교급보다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직업정보의 탐색·수집·축적·가공 역량이나 학교 밖

7) 학교급을 통합한 최종 역량모델에는 포함되지 못한 해당 학교급의 특화 역량을 표기함.

열린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이해 증진을 위해 학생과의 상담 시 발달수준에 맞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도 중시되었다. 우선순위가 높지만 HL분면에 속한 역량(13, 22, 23, 19, 12, 17, 21, 16번)과 반대로 우선순위가 낮지만 LH분면에 속한 역량(11, 4, 26, 15, 14번)을 포함하여 [그림 6]처럼 역량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림 6] 중학교 교원의 역량 우선순위 및 LF분포도

역량	Borich값	우선순위	LF분포	특화
13	6.20	1	HL	
6	6.05	2	HH	
22	5.71	7	HL	●
23	5.69	8	HL	
19	5.54	10	HL	●
5	5.23	11	HH	
11	5.09	12	LH	
12	5.05	13	HL	●
17	5.01	14	HL	●
21	5.00	15	HL	●
16	4.94	16	HL	
4	4.84	19	LH	
26	4.67	21	LH	
15	4.5	22	LH	
14	4.42	23	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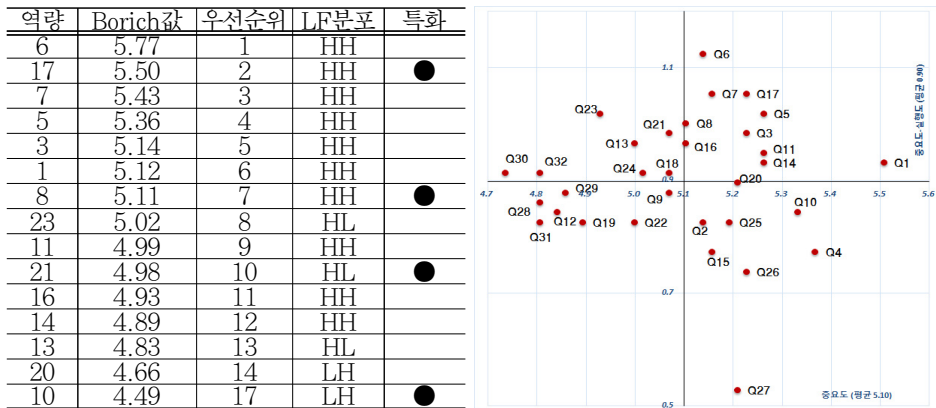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진로실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에서 고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과적성을 발견하고 학습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며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진학 결과들을 축적하고 적용하는 것도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진학 중심 일반고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역량

일반고 교원의 역량 분석 결과, Borich값 1순위부터 7순위까지인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6번)’,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17번)’, ‘직업정보의 전달 및 공유(7번)’,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5번)’,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3번)’,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1번)’,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 포함(8번)’과 9순위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11번)’, 11순위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16번)’, 12순위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14번)’은 모두 HH분면에 포함되었다.

우선순위가 높지만 HL분면에 속한 역량(23, 21, 13번)과 반대로 우선순위는 다소 낮으나 LH분면에 속한 역량 일부(20, 10번)도 포함해 [그림 7]처럼 역량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림 7] 일반고 교원의 역량 우선순위 및 LF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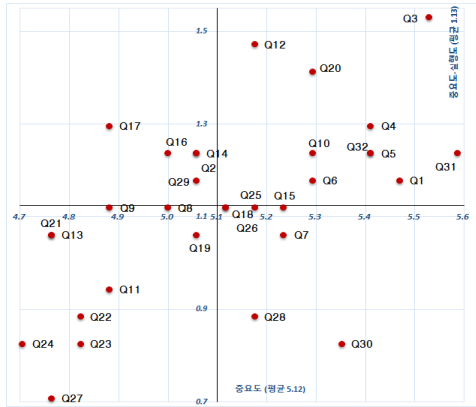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에서는 진로 목표 설정과 경로 설계를 위한 자기이해와 일과 직업세계 이해를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반고 교원에게는 학교 생활부 전형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을 포착하여 교과발달 상황을 기록하거나, 학부모의 진로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 비교과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취업 중심 특성화고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역량

특성화고 교원의 역량 분석 결과, 1순위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3번)’, 2순위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2번)’, 4순위 ‘학생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소통(4번)’, 5순위 ‘취업처 맞춤형 지원문서 작성 및 면접지도(31번)’, 6순위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5번)’, 7순위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32번)’, 8순위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열정(10번)’, 9순위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1번)’, 13순위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6번)’이 HH분면에 분포하였다. 우선순위는 다소 낮지만 LH분면에 속한 역량(15, 25, 18, 26, 7번)과 LL분면에 속하지만 3순위 ‘학생 맞춤형 진로경로 제안(20번)’은 [그림 8]과 같이 역량모델에 포함하였다.

[그림 8] 특성화고 교원의 역량 우선순위 및 LF분포도

역량	Borich값	우선순위	LF분포	특화
3	8.46	1	HH	
12	7.61	2	HH	●
20	7.47	3	LL	
4	7.00	4	HH	
31	6.90	5	HH	●
5	6.69	6	HH	
32	6.69	7	HH	●
10	6.54	8	HH	●
1	6.44	9	HH	
6	6.23	13	HH	
15	5.85	16	LH	
25	5.79	17	LH	
18	5.72	18	LH	●
26	5.72	19	LH	
7	5.54	21	LH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는 학생마다 적합한 진로를 찾고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3, 12, 20번)과 취업 성과로 직결될 수 있는 활동(31, 32번)이 교원의 필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목표와 경로가 설정된 학생들이 특정 전문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된다는 특성화고 취지에는 걸맞으나, 학생과 학교(전공) 간 불일치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진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모델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주요책임영역(KRAs)을 도출하고, 우수성과자 심층면담, 전문가 타당화 조사, 교사 역량우선순위 조사, 역량모델링 워크숍에 이르는 일련의 검증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교원의 역량 요구도가 학생의 진로발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표 10〉 참조), 학교 급별 역량모델을 단순히 통합하지 않고 전체 응답을 고려하면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2012 제정, 2015 개정)과 연계하였다.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역량군은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에,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역량군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진로 연계학습 촉진'과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 및 지원' 역량군은 진로탐색에, '진로경로 설계 조력'과 '진학 준비 지원' 역량군은 진로디자인과 준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돈하였다.

다음으로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6b) 등 정책적 강조점을 반영하고자, 기존 역량군을 재분류하고 ‘학생 및 학부모 진로상담’ 역량군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여기에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상담’과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를 통한 학부모 지원’의 두 역량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간 연계 가능성 포착’ 역량의 주요 내용을 ‘진로 연계 학습 촉진’ 역량군 내 하위 역량인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생의 교과적성을 진로개발로 전이’에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최종 확정된 역량모델은 [그림 9]와 같이 7대 역량군 내 15개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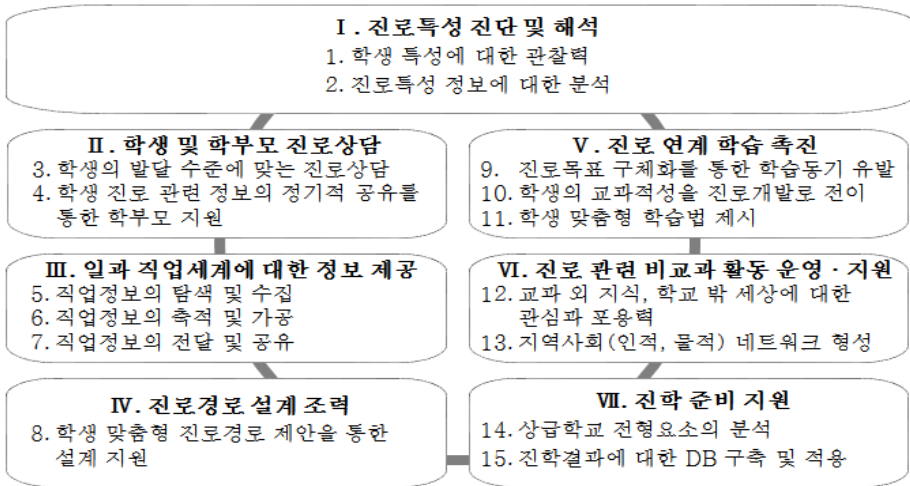
<표 10> 학교급 통합 최종 선정 역량 목록

역량군	역량명	초등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	●		●	●	●
	진로진단도구의 선택 및 결과 해석					●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	●		●	●	●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상담*		●		●	●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	●	●	●	●	●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	●	●	●	●	●
	직업정보의 전달 및 공유*	●		●	●	●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 포착			●		●
	교과-진로 연계 수업 설계 및 운영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지원	학생과 호흡할 수 있는 눈높이와 열정			●	●	●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	●	●		●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지역사회(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	●	●		○
진로 연계 학습 촉진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	●		●
	학생의 교과적성을 진로개발로 전이*		●		●	●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	●	●	●		●
	학습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	●	●		○
진로 경로 설계 조력	진로의사결정 점검 및 개입(intervention)				●	
	성공적/대안적 진로경로에 대한 DB 축적		●			○
	학생 맞춤형 진로경로 제언*	●		●	●	●
	진로개발 이력에 대한 컨설팅		●	●		

역량군	역량명	초등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학부모 진로상담	진로장벽 또는 진로갈등의 조정	●	●			○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	●	●	●		●
	정보/경험에 근거한 자녀 진로의사결정의 방향 제안	●				
진학(취업) 준비 지원	상급학교 전형요소의 분석*	●		○	●	●
	진학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	●		●	●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공식문서 작성					
	우수 취업처(실습기관 포함)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취업처별 전형요소의 분석					
	취업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취업처 맞춤형 지원문서 작성 및 면접 지도				●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				●	

● 학교급별 15개 선정 역량, ○ 15개 외 상위 역량, * 최종 확정역량임.

[그림 9]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모델



본 연구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와 학생 진로개발을 위해 일반 교원이 확보해야 할 직무역량을 도출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기반 학습과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준거로 활용가능하다는 실무적, 정책적 유효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인성지도나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담활동이 아니라,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성취를 위해 일반 교원의 실천적 진

로지도 및 상담 수행의 기초적 행동 지침을 마련한 점이다. 일반 교원은 담임교사로서, 교과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진로교육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연구(김은경, 2014; 박용호, 2011; 오정숙, 2014; 최윤정·김지연, 2016)에 비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둘째, 체계적인 역량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은 교원의 역량 성숙도 진단 및 건설적 피드백 제공,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양성 제도 개정(안선희 외, 2015) 및 표준교육과정 개정(장현진·이종범, 2016)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에 노력하는 만큼, 본 연구는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제도적 지원 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과 전환기를 고려한 진로교육, 학생 진로 설계와 실행을 위한 개별화 전략, 진학정책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진로지도, 학생 및 학부모 진로상담을 위한 지원책 수립 등에 있어서 교원의 실제 성과 전이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김은경, 2014; 이종범 외, 2010; 정윤경 외, 2012; 정철영 외, 2014)과는 달리 학교급별 상황을 고려한 일반 교원의 역할과 역량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구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다음의 한계로 인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지도 및 상담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된 개념이 요구된다. 역량은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행자의 행동 특성이라는 점에서,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진로지도 및 상담의 성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급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이, 학교간 차이를 반영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마다 산업 발달이 달라 부모의 직업군, 경제적 소득,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문화적 기반시설 등이 상이하고, 동일지역이라도 학교마다의 특성이 학생들로 인해 구별되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개정, 진로교육 정책 지원과 같은 학교 내 변화, 노동시장 및 산업 여건의 변화와 같은 학교 밖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추이 또한 확인하여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연수와 같은 교육훈련 방식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외부 자원과 협업하는 체제와 교원 간 학습공동체 활동, 직업 및 진학 정보에 대한 DB 구축, 상담력 제고를 위한 교원별 코칭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석주(2004). 「중등학교 담임교사 역량 탐구: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2권 제4호, 237~264쪽, 한국교육학회.
-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고자경·정명실·최명애·박영임·방경숙·김정아·유미수·장혜영(2013).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간호역량 모델링에 대한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87~96쪽, 한국간호교육학회.
- 고재성(2011). 「진로진학상담교사 현황 및 연수실태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197~217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 _____ (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연구보고서 진로교육 2012-1.
- 교육부(2016a).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연구보고서 진로교육 2016-1.
- _____ (2016b).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 금지현·이쌍철·김동심·송솔이(2016). 「방송통신중학교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3권 제1호, 73~96쪽,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기태·조평호(2003). 『미래지향적 교사론』, 교육과학사.
- 김나라·방재현·정진철(2012).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분석」, 『실과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50~267쪽,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 김옥선·권정언(2015). 「AHP를 이용한 교육기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성과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1~19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김용익·정진현·이춘식·최명숙(2001). 「초등학교 교원들의 기술적 교양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93~107쪽, 한국실과교육학회.
- 김은경(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경·한만길·박영숙·홍영란·백선희(2005).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2005-08.
-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배영사.
- 류지훈·이신동(201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핵심역량 모형 개발 및 타당화』, 『영재와 영재교육』, 제13권 제2호, 63~95쪽, 한국영재교육학회.
- 박석영·김진모(2014).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 현장교수 역량모델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6권 제3호, 53~81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박영숙·정광희(1999). 『능력중심의 교사직무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99-21.
- 박용호(2011).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117~136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박한숙·박수홍(2016). 『혁신학교 초등 교사들의 핵심 역량 모델링: 따뜻한 교육공동체 형성 역량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329~353쪽,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배을규(2003). 『기업 교육훈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교육훈련 평가요구도 조사: 북미지역 핵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5권 제2호, 113~133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서명희·김민정(2014).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의 역량모델링』,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9호, 391~409쪽,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송영수(2000). 『21세기 지식경영 시대와 핵심역량접근방안』, 『산업교육』, 2000년 2월호, 76~79쪽, 한국산업교육학회.
- 안선희·서우석·조대연·권정연·이건남·방혜진(2015).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05-4.
- 엄지·이건남(2014). 『텔파이 기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도출』, 『실과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29~54쪽,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 오승국·전주성·박용호(2014). 『교육요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기존 방법 보완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7권 제4호, 77~98쪽,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오정숙(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41~64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관춘·김은경(2012). 『기업교육론』, 학지사.

- 이종범·최동선·고재성·이혜숙(2010).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장현진·김민경·류지영·유미애·이지은·윤형한(2016). 『2016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 사업: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16-31.
- 장현진·김민경·류지영·윤수린·유미애(2015). 『2015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15-05-05.
- 장현진·이종범(2016).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1~21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전제상(2000). 『교사평가의 준거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김갑성·류성창·김병찬·박상완(2011).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요구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287~360쪽, 한국교원교육학회.
- 정영공(2007).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상담 모형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김나라·서유정·조희경(2012). 『초·중등 단계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진로교육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12-25.
- 정철영·서우석·조동섭·박행모(2014).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실태 분석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제22권 제3호, 165~187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조우연(2012). 『교사발달단계에 따른 중등교사 연수교육과정 구성』,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김지연(2016).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상담 수행 역량 및 상담자 발달 수준과 직무역할』,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23~45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하준미(2004). 『교원이 인식하는 우수교사 유인을 위한 교원 정책 개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ley, L. J.(1973). *Career Exploration for Elementary Children: A Curriculum Model*,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094161.pdf>
-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1 No.3, pp. 1~35.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Y: John Wiley & Sons.
- Chomeya, R.(2010). "Quality of psychology test between Likert scale 5 and 6 point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6 No.3, pp. 399~403.
- Elhamoly, A. I., Koledoye, G. F., & Kamel, A.(2014). "Assessment of training needs for Egyptian extension specialists (SMSs) in organic farming field: Use of the Borich needs model", *Journal of Agricultural & Food Information*, Vol.15 No.3, pp. 180~190.
- Hoyt, K. B.(1978). "The concept of collaboration in career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mn.31951002843874d;view=1up;seq=2>
- Klemp, G. O. Jr(Ed).(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Vol.28, pp. 563~575.
- McClelland, D.(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28 No.1, pp. 1~14.
- McLagan, P. A.(1997). "Competencies: The Next Gener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Vol.51 No.5, pp. 40~47.
- McKim, B. R., & Saucier, P. R.(2011). "An excel-based mean weighted discrepancy score calculator", *Journal of Extension*, Vol.49 No.2, pp. 1~4.
- Mink, O. G., Schultz, J. M., & Mink, B. P.(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s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TX: Catapult Press.
- Oladele, I.(2015). "Borich needs model analysis of professional competence among extension officers in north west province, South Africa", *Journal of Agricultural & Food Information*, Vol.16 No.2, pp. 151~162.
- Parry, S. B.(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Vol.33 No.7, pp. 48~56.
- Ricketts, J. C., Duncan, D. W., & Peake, J. B.(2006). "Science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complete programs of agriscience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47 No.2, pp. 48~55.

Spencer, L. M., & Spencer, P.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Y: Wiley.

Wilson, F. R., Pan, W., & Schumsky, D. A.(2012). “Recalculation of the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45 No.3, pp. 197~210.

Zarafshania, K., & Baygia, A. H. A.(2008). “What can a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 tell us about in-service training needs of faculty in a college of agriculture? The case of Ira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Vol.14 No.4, pp. 347~357.

Abstract

Research on Deriving Core Competencies
in School Teachers'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orks

Miri Eom
Jungeon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re competencies of teachers in the areas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and to use the results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data for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Through literature study, in-depth interview with competent teachers, validation survey of experts, and competency modeling, including the analysis of teacher competency priorities, this study developed seven competency clusters and fifteen compet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mpetencies of search, collection, accumulation, and processing of vocational information were so high priorities as to be selected by all levels of schools. Other commonly emphasized competencies at al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ed interest in and reception of the extra-curricular knowledge and affairs of the world outside the school, consulting of parents on students' career through regular sharing of students' career information, and supporting career development through student-centered personalized learning. This study empirically proved that teachers should explor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world and trends in society overall to improve their counseling performance.

Key words: school teachers,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ing, job competency, competency modeling

[부록]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모델

역량군	역량명	역량정의
I.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1. 학생 특성에 대한 관찰력	직접 관찰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별 특성을 진로와 연계시켜 자료화한다.
	2. 진로특성 정보에 대한 분석	관찰, 청취, 진단도구 등으로 수집된 학생의 특성을 종합하고 기존 지도 학생들의 경험 자료를 검토하여 학생이 지닌 진로특성(강점, 능력 포함)을 도출한다.
II. 학생 및 학부모 진로 상담	3.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상담	교사가 직접 분석한 학생의 진로특성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진로개발의 동기를 형성하도록 그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적절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4. 학생 진로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를 통한 학부모 지원	학생의 진로개발 동반자로서,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개인의 진로 관련 정보(학업성취도, 진로개발 이력, 진로목표, 희망진학처 등)를 온오프라인채널(학부모연수, 정기상담, 온라인 카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III.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5. 직업정보의 탐색 및 수집	현재와 미래 직업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처(교육 및 고용정책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수집한다.
	6. 직업정보의 축적 및 가공	진로탐색 및 설계에 도움이 되는 직업정보를 목록·유형화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활용 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자료로 개발한다.
	7. 직업정보의 전달 및 공유	학생이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진로탐색에 필요한 직업정보(관심 직업의 경로, 학업 및 자격 요건, 교육훈련 방안 등)를 확보하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춰 자료를 전달·공유한다.
IV. 진로경로 설계 조력	8. 학생 맞춤형 진로경로 제안을 통한 설계 지원	학생의 내·외부적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경로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최선의 진로 목표와 경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V. 진로 연계 학습 촉진	9. 진로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학생이 진로 목표와 목표 달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관심 진로(직업)와 교과 요소간 연계를 설명한다거나 직업 획득에 요구되는 교육(자격)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인다. 특히 지속적인 진로개발에 있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10. 학생의 교과적성을 진로개발로 전이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진로정보(학교, 전공, 직업 등)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학생이 자연스럽게 진로개발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과 내용과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 가능성(주제, 내용, 활동 등)을 발굴하고 수업을 설계, 운영한다.

역량군	역량명	역량정의
	11. 학생 맞춤형 학습법 제시	진로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학생의 학업특성(학습유형, 성적, 선호학습법, 효능감 등)에 따라 맞춤형 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VI.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지원	12. 교과 외 지식,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문화예술, 테크놀로지, 사회현상, 각종 취미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비교과 활동으로 전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확대한다.
	13. 지역사회(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비교과 활동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전문가, 학부모 등의 교육기부처(자)를 직접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의 발굴과 참여를 독려한다.
VII. 진학 준비 지원	14. 상급학교 전형요소의 분석	상급학교의 전형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교육청 연수, 입시설명회, 입시요강, 교사모임 등)에서 정보를 수집·목록화하고 분석하여, 우리 학교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진학 전략을 수립한다.
	15. 진학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적용	분석된 전형요소별로 각종 진학결과(입시전문기관 자료, 우리 학교 및 유사학교 졸업생 진학결과, 대학/고교별 자료 등)를 DB로 구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진학가능 대학 및 학과, 전형을 추출하고 여기에 맞춰 준비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진학률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취업 준비 지원*	추1. 취업처 맞춤형 서류 및 면접 진행 지도	취업처별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학생의 인성과 직무역량 차원에서의 장점이 부각된 지원 서류를 작성하도록 개별 지도하고, 면접 진행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습득하도록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2. 현장실습 관리 및 최종 취업 연계	현장실습의 사전 활동(기관 협약 등)과 배치 학생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상 확인 등)을 통해 실습기관과 학생의 니즈를 균형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핵심직무역량모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취업 준비 지원 역량군의 두 가지 역량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 교원이 확보해야 할 필수 역량으로 추가 제안함.